

2019년 교구장 사목교서에 대한 설명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후 2시~3시

장소 :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대상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영, 수탁 시설장 및 부·국장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2019년을 맞이하며 반포한 교구장님의 사목교서 주제는 ‘선교’ 즉 복음화와 복음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기초 교회로서 복음화를 가능케 하는 신앙이 전수되고 성장하는 ‘가정의 성화’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선교’, 즉 ‘복음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들, 곧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마르 16장).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신과 함께 생활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행위, 업적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신비를 깨달아가게 되었으며 마침내 부활체험을 통해 스승이 전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고 성령 강림을 통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였던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서 선포한 복음과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복음화의 주제는 ‘하느님 나라’이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는 분명히 공생활 전체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예수는 하느님께서 모든 이를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예수는 당신의 활동 그 자체가 하느님 사랑의 초대를 가리키는 표징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니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였다. 피부, 종족, 남녀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이가 하느님의 한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초대되었음을, 그렇기에 서로를 형제, 자매,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하느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이룰 것을 선포하였다.

이를 위해 예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들, 세리나 창녀 등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제의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었다. 그럼으로써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가 지니고 있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예수는 공생활을 시작하며 사도들을 선발하였다. 열둘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이미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사도들과 함께 하며 예수는 새로운 이스라엘, 구원 공동체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제자들 역시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설립하였다.

하느님 나라의 선포, 하느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 일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예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셨다. 곧 세상에 파견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복음 선포, 하느님 나라의 선포,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속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느님 구원의 선포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증언이고 선포이다.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도록 돕는 ‘도구’로서 이해될 수 있다.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무 또한 그러해야 한다. -사실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직무란 세상에서 보더라도 없다. 세상을 위해, 타인을 위해 존재하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직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직무에 상응하지 못할 때, 곧 세상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복음화’를 강조하는 교구장의 사목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근원적인 실존의 근거와 목적에 대해 다시 성찰토록 일깨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복음화하고 자신을 복음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원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성찰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며 지지하고 삶의 개선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 성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나의 직무, 내가 일하는 자리가 곧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리이며 그것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장이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구원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매일 구원의 신비를 살아가도록 초대된 이들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축복, 은사라는 것을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가톨릭교회의 신앙에서 구원의 공동체, 공동체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인듯이 가톨릭교회가 실천하는 사회복지의 주제 역시도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복음화’의 사명을 강조하는 교구장의 사목교서는 일깨우고 있다.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물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를,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인간존엄성을 강조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가 지향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들인 인류와 창조된 세계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교회는 사회교리를 알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는 당연히 사회교리의 이론적 기초 위에서 실천되는 사랑이기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구장의 사목교서는 복음화의 시작으로 가정 공동체가 지닌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며 가정의 성화를 위해 살아갈 것을 제안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과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복음적 삶의 소명을 강조한 이후에 권고 ‘사랑의 기쁨’을 발표하시며 혼인과 가정 공동체의 소명, 성소를 강조하셨음을 연상케 한다.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가정은 가장 작은 그렇지만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사회이며 교회는 가정을 가장 작은 교회라고 지칭한다. 가정 공동체를 통해 사람은 양육, 성장하며 세상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가정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사회화를 위한 바탕이 형성되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이며 신앙과 가치관이 전수, 공유되며 형성, 성장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그렇기에 가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고 가정의 안정과 성숙을 돕기 위한 국가의 역할 또한 강조해 왔다. 그렇기에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기관들에서도 직원들의 가정이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직원들의 가정이 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방법이나 수단들을 제공, 또는 실천함으로써 사목교서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복음화를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사목교서에서 교구장은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과 복음적 가치관이 전달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급격한 노령화를 겪으며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불거지는 문제 중의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의 심화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태극기 집회’ 등으로 인해 노년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적지 않으며 노년, 장년 세대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젊은이들에게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커지

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학이 분석하듯이 오히려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 -청년실업, 빈곤 노인의 증가 등-를 오도하게 만드는, 그래서 갈등과 불균형, 불안의 심화를 조장할 뿐이다. 때문에 세대 간의 통합, 계층 간의 대화와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교구장의 사목 교서가 가리키는 바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가난과 장애, 그리고 이로 인해 비롯되는 소외가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곧 그가 속해 있는 인간관계 그룹, 공동체까지도 위협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경제적 문제로 해체되는 가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다- 결국 사회적 돌봄과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회복은 한 개인의 차원만을 넘어서 그 가족의 회복까지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하리라 헤아리게 된다. 온전한 그물망을 만듦으로써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실천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협력자로서 이용자 및 생활하는 이들의 가정과의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인 수단,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과의 협력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대상자만이 아닌 함께 하는 더 많은 이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행복해질 수 있기를,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목교서와 사목교서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들은 본당만이 아니라 서울대교구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톨릭신앙인들과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이 실천하도록 제안된 것이다. 그렇기에 지침들은 우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2019년 사업 및 법인의 운영에도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살아가게 된다.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은 이것만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통해 각자의 상황, 사정에 맞게 필요한 것을 결심하고 실천하도록 우리를 일깨운다.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설이나 기관의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선정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란다.

한편에서는 사목교서와 지침에 따른 시설, 기관의 새해 계획이나 실천사항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비-신자 종사자들과 사목교서와 지침을 공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면을 감안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시설장과 부/국장의 역할, 직무이기 때문이다.

세부 지침들을 보면 시설이나 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사목국의 세부 지침 중 다섯 번째 지침, “가정 안에서 ‘세 가지 말-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실천합시다” 라는 지침과 같은 것들은 실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설장 및 부/국장님들께서 고민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지침일 것이다.

한편 복음화, 선교와 관련해서 시설장 및 부/국장들은 자신들이 지닌 가톨릭신자로서의 신앙을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들은 생활의 모범을 통해서 신앙,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또한 되물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주일미사만 참석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모범이 되는가?, 주일미사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는 늘 우리들이 되물어야 하는 성찰의 물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일미사를 가볍게 여기면서, 성사생활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도 합당한 가톨릭교회의 신앙은 없다.

가톨릭교회의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신앙이다. 주일미사는 구원의 공동체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일깨우며, 공동체와 더불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톨릭교회 신앙의 핵심, 본질적 행위이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바울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보다 더 정직할 것을 일깨운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모순이고 자기기만이다.

본당 신부들의 주보 성인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이다. 이분은 훌륭한 성덕을 지니신 분이었지만 -특별히 고해성사를 정성껏 집전하였다고 전해진다-, 학창 시절에는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한 분이었다고 한다. 학교 성적이 부진하여서 몇 차례에 걸쳐서 퇴학을 당했던 분이라고, 그래서 사제가 되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겪은 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는 종종 공부를 못 하거나 성적이 좋지 않은 신학생들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합리화하기 위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을 예로 들곤 했다. 그러면 교수 신부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던 분이며 -그렇기에 공부하지 않는 너와는 다르며- 세상에 성적이 안 좋은 신학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신 분은 오직 이 분 한 분뿐이시니 딱 말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도 닦으라는 말씀이었다. 성적이 안 좋다고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며 성실하게 제 본분을 다하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성사생활, 본당 공동체를 기본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충실한 이가 결국은 가톨릭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보다 더 충실하고 올바르게 깨달을 것이며 그러한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살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그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시설장 및 부/국장들께서는 동료들,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된 이들이다. 동료 직원들 역시 우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사랑의 실천, 복음의 선포,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 힘의 원천은 기도이다. 사실 기도는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를 구별하는 구체적 행위일 것이다.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며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행위이다. 기도가 우리들 삶, 사업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렇지만 특히 수탁시설의 경우, 기도, 예식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토로하는 것을 알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수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관련된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은 어찌 보면 홍길동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교구의 사목국 산하에는 직장사목부가 있다. 이 부서는 직장에서 구성된 신우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한다. 직장사목부 산하에는 공무원들 및 기업들의 신우회가 있으며 이들은 대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주기적으로 회합을 진행하며 신앙을 키워간다.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차별은 당연히 없어야 하며 배려 또한 당연히 실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믿는 이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분명한 신앙생활은 뒤로 미루어지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목교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시설장 및 부/국장님들께 가톨릭교회의 신앙인으로서 함께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지닌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드린 듯하다. 이것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더 많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주제였던 듯싶다.

복음화는 공동체의 형성, 성장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역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인 사무국은 이러한 구체적 사업들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 사무국과 각 시설, 현장의 관계에서도 공동체라는 의식,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이나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나 자율성으로 상징되는 보조성은 그 자체로 충분한 ‘선’은 아니다.

보조성은 연대성을 전제한다. 때문에 시설장 및 부/국장님들께 요청하는 것은 연대성에 대한 더한 책임감이다.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 및 경험들에 대한 공유, 사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인 사무국과의 공유가 연대성의 한 예일 것이다. 이를 좀 더 튼튼히 하기 위해 직영, 수탁시설에 월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와 관련된 것은 공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연대성은 법인 사무국과의 관계 안에서만 실현되거나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함께 하는 같은 법인 산하의 기관들과의 협력,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또한 분야별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법인을 넘어 함께 하는 사회복지 기관들 및 기타 협력 기관 및 지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연대성은 실현되어야 하며 그러해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별히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기관들은 지역 내에 함께 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은 우리 기관만의 성공적인 운영으로는 실현가능하지 않다.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며 나아갈 때 소외된 이들이 존중받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협력과 연대를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올해 일차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직영/수탁시설의 시설장 및 부/국장에 대한 면담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다. 시설을 방문해서 면담을 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시설장에 대해서도 면담을 할 것이고 수탁 전에도 면담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법인 사무국의 중요한 역할을 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정체성 확립, 공유를 위한 교육, 행정지원(점점 등의), 본당의 사회사목 지원, 자원개발과 홍보로 이해하고 있다. 법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사실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필수적이라는 점은 부인될 수 없다.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직원들이 법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는 의무이다- 더불어 법인 교육의 이수 여부를 승진 및 고과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합당한 변명이 되지 않지만-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법인 사무국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법인 교육 이수를 중요하게 조건으로서 제시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설장 및 부/국장들께서 요구받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통’ 일 듯하다. 이것은 법인 사무국에도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와 법인 사무국 직원들도 함께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 사무국의 담당관 및 담당 직원들과의 공유에 대한 것이다. 시설에 대한 담당자들이 저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며 어떤 경우에는 저를 대신해서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기에 보고와 공유에 있어서 먼저 공유하기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알아야 저에게 보다 더 적절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그래야 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임을 알려드린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교회도 고령사회이다. 이 말은 이전처럼 성장 위주, 또는 팽창 위주의 운영,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좋았던 시절이 끝났다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이제는 정비를 해야 하고 식별을 하며 내실을 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법인 사무국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새 길을 가야 하는지를 식별

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 대해 현장에서 함께 하는 분들도 함께 고민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자리에서 못 다한 말씀은 추후에 연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안과 격려가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린다.